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의 연행과 《연행시화첩(燕行詩畵帖)》

박정애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미술사학 전공

sane66@hanmail.net

- I. 머리말
 - II. 관암 홍경모의 연행 체험과 연행기록
 - III. 《연행시화첩》의 현상과 시화의 구성
 - IV. 《연행시화첩》 연행도의 회화적 특징
 - V. 맺음말
-

I. 머리말

연행(燕行, 使行)은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정책에 따라 명·청 대 수도 북경에 사절단을 파견한 외교 의례를 일컫는다.¹ 정기적으로 행해진 절행(節行)과 부정기적 별행(別行)으로 나뉘는 연행은 매년 수차례,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양국 정부의 소통 창구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인적·물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그와 같은 연행의 역사는 관찬 사서나 외교문서 외에도 연행에 참여한 인사들이 사적(私的)으로 저술한 연행록(燕行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행의 실상은 문자뿐 아니라 시각언어로도 기록되었으니 이른바 ‘연행도(燕行圖)’ 혹은 ‘사행기록화(使行記錄畵)’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미 600여 종이 파악된 연행록의 규모에 비하면 연행도의 유존 현황은 영성하다.²

당시 삼사(三使)를 비롯해 시문에 능한 문사들이 사절단의 주축을 이룬 반면, 화원(畫員)이나 문인화가가 참여한 연행의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데서 1차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설사 수행 화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본 업무는 연행 노정에서 접한 견문을 꼼꼼히 정리한 연행록의 서술 방식과는 거리가 있었다.³ 그 때문에 1760년(영조 36) 동지사행에 발탁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6494).

- 1 ‘事大交隣’은 중국·일본·유구 등 인접 국가에 대한 조선 정부의 기본 외교정책이다. 중국에 파견한 對明·對淸 사절단을 각각 조천사와 연행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 연행록선집』(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과 같은 자료집이나 관련 논문에서는 중국 사행을 ‘연행’으로 통칭하는 양태를 보인다.
- 2 김영진, 「燕行錄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試論」, 『대동한문학』 제34권(2011), 65~91쪽;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서울: 사회평론, 2012). 이 밖에 연행록과 연행도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면서 제시하고자 한다.
- 3 정은주, 「燕行 및 勅使迎接에서 畫員의 역할」, 『명청사연구』 제29집(2008), 1~36쪽.

화원 이필성(李必成)이 영조의 어명으로 그린 《경진년연행도첩(庚辰年燕行圖帖)》(이칭 瀋陽館圖帖)과 같이 연행 노정의 사적을 화폭에 옮긴 연행도가 적극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⁴ 결과적으로 명·청대 북경을 오간 조선 사절단의 모습이나 왕래 여정에 자리한 명승고적을 재현한 연행도는 소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양에서 북경까지 약 3,000리에 달하는 여정의 이모저모를 형상화한 시와 그림이 합철된 《연행시화첩(燕行詩畫帖)》의 전래 사실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 소장 《연행시화첩》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다루거나 전시회에 출품된 적이 없는 미공개 유물이다. 현재 국내와 중국 여정의 시화로 꾸민 두 권의 첩으로 장황된 채 전한다. 두 권 다 표제가 없으며 20여 편의 시와 36폭의 그림이 실렸을 뿐 서문이나 발문은 없다.⁵ 《연행시화첩》은 대다수 연행도 작품들이 중국 내 여정을 시각화한 것과 달리 서도지방(西道地方)을 거치는 국내 여정도 비중 있게 취급하였다. 또한 그림의 양이 다른 어떤 작품보다 많아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정작 시화첩의 제작 경위를 전하는 직접적인 정보가 실려 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나마 국내 여정의 화폭과 병치된 시 말미에 부기된 연도, 즉 '경인(庚寅)'과 '갑오(甲午)'는 시화첩의 실체에 다가가는 단서로 삼을 만하다. 해당 시기에 연행한 인물들과 20여 편의 시를 추적한 결과 시는 1830년(庚寅)과 1834년(甲午), 순조 연간 두 차례 연행한 홍경모(洪敬謨)의 문집에 수록된 연행시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행도의 형식과 내용에서도 홍경모와 직·간접적으로

4 박은순, 「조선후기 『심양관도』 화첩과 서양화법」, 『미술자료』 제58호(1997a), 25~55쪽; 정은주, 「1760년 庚辰冬至燕行과 《瀋陽館圖帖》」, 『명청사연구』 제25집(2005), 97~138쪽.

5 두 권 모두 표제가 없고 국내 여정으로 꾸민 제1권 첫 장에 '笑夢' 두 글자가 묵서되어 있으나 시화첩의 제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가 시화첩의 내용에 의거해 작품명을 '연행시화첩'으로 정하였음을 밝힌다.

연계되는 특징적 요소들이 간취된다. 이는 《연행시화첩》이 19세기의 문인 관료 홍경모의 연행을 시와 그림으로 기록한 유물임을 말해준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경화세족으로 꼽히는 풍산홍씨 가문은 17세기 이후 총 38명의 연행 사신을 배출하였다. 홍경모처럼 두 번씩 연행한 인물도 여럿이어서 전체 연행 횟수가 46회에 달하며, 홍씨가 문사들이 저술한 연행록만 18편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풍산홍씨 가문은 연행을 계기로 만난 청 문인들과 대대로 '신교(神敎)'를 나누기도 했다. 그에 따라 홍경모뿐 아니라 홍양호(洪良浩)·홍희준(洪羲俊)·홍석모(洪錫謨) 등 홍씨가 연행과 연행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⁶ 그러나 기존의 연행록 및 연행도 관련 연구에서 홍씨가 연행도가 거론된 적은 없다는 점에서 새로 발굴된 《연행시화첩》이 더욱 주목을 끈다.

이 글에서는 홍경모의 연행과 《연행시화첩》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통해 《연행시화첩》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검증하고 관련 주제의 연구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시화첩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홍경모의 연행 체험과 연행록 저술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연행시화첩》의 제작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 한다. 이어서 《연행시화첩》의 현상과 시화의 구성, 홍경모의 연행 시문과의 연관성 등을 짚어본 다음 연행도의 제작 방식과 회화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 과정에서 《연행시화첩》의 제작 시기와 제작 경위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본다.

6 이군선, 「冠巖 洪敬謨의 詩文과 그 性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100~115쪽; 김명순, 「洪錫謨의 游燕藁 研究」, 『동방한문학』 제27권(2004), 257~290쪽; 이창숙, 「관암 홍경모의 중국 체험과 인식」, 이종묵(편),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서울: 경인문화사, 2011), 163~210쪽; 임유익, 「冠巖 洪敬謨의 清代 文人과의 交遊와 燕行錄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정우봉, 「耳溪 洪良浩의 燕行錄에 나타난 중국 체험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63호(2016), 67~95쪽; 김동건, 「洪良浩家 燕行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8) 외 다수.

II. 관암 홍경모의 연행 체험과 연행기록

홍경모(1774~1851)는 자가 경수(敬修), 호가 관암(冠巖)·운석일민(耘石逸民)이며 영조 대 태어나 철종 대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풍산홍씨 명문가 출신의 소론계 문인관료로 비교적 평탄한 일생을 보냈다. 선조 임금의 장녀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와 혼인한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의 6대손이자 이계(耳溪) 홍양호(1724~1802)의 손자이다. 세 살 때 부친 홍낙원(洪樂源)을 여의고 할아버지 홍양호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학문은 물론 예술 취향까지 조부의 가르침을 전수하였다. 그는 1805년 진사시에, 1809년 문과에 급제했고 40여 년간 내·외직을 오가며 벼슬살이를 하였다. 1830년 부사로 1차 연행하였고, 4년 뒤에는 정사가 되어 재차 연행하였다.⁷ 그리고 70세 때인 1843년에 기로소에 입소함으로써 ‘삼대사기(三代四耆)’의 광영을 누렸다.⁸

홍경모는 기록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인물로 평생 동안 저술에 힘썼다. 현전하는 그의 저작물은 모두 필사본인데, 전래 도중 산실된 양도 적지 않은 듯하다. 연행 관련 기록은 시와 산문, 편지, 서발문 등 형식이 다양하며 분량도 많다. 그중에서 각각 1, 2차 연행 때 지은 시를 모은 『사상운어(槎上韻語)』와 『사상속운(槎上續韻)』, 그리고 2차 연행 때 조부 홍양호의 연행시를 차운해 만든 『경차왕고문헌공연운속영시운(敬次王考文獻公燕雲續詠詩韻)』은 홍경모가 북경을 향하는 노정을 따라가며 쓴 시집이어서 일기체 연행록

7 1830년 사은겸동지사(謝恩兼同知事)의 정사는 徐俊輔, 부사는 洪敬謨, 서장관은 李南翼이었고, 1834년 진하겸사은사의 정사는 洪敬謨, 부사는 李光正, 서장관은 金鼎集이었다.

8 홍씨 집안에서는 洪良浩·洪明浩·洪義俊, 그리고 洪敬謨까지 3대에 걸쳐 4인이 기로소에 입소하였다. 강석화, 「19세기 京華士族 洪敬謨의 생애와 사상」, 『한국사연구』 제112권(2001), 165~195쪽;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가문의식」,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39권(2005), 107~112쪽.

과 같은 역할을 한다. 두 번의 여행을 모두 마친 후 정리한 산문 형식의 『요야기정(遼野記程)』도 실제 노정을 반영해 편집하였다. 이들 기록은 모두 서울을 떠나 북경에 입성하기 전까지 연로에서 느낀 감회와 견문으로 채워졌다.⁹ 세 권의 시집에서 발췌한 시편이 《연행시화첩》에 그림과 함께 실려 있고 『요야기정』의 내용도 북경을 제외한 노정에서 화제(畫題)를 취한 연행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경모가 것처럼 요야(遼野)의 탐방에 공력을 쏟은 까닭은 다음의 「요야정사인(遼野程史引)」에서 엿볼 수 있다.

압록강 밖에서 산해관까지 2천 리 사이에 요야가 삼분의 이를 차지한다. 따라서 행인이 여행 길을 걷는 것이 요야에서 가장 힘들고, 대지를 유람하는 것을 요야에서 제일 많이 한다. ... 내가 지나간 곳이 기이한 풍경이 아닌 곳이 없으니 성지·사묘의 웅장하고 화려함과 시포·보점의 변화함, 초목·금수의 미세함과 고적·승경의 유적을 망라하지 않음이 없었다.¹⁰

조선 사절단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요동과 요서, 즉 요야에서 보내야 했고, 행인(使臣)을 자처했던 홍경모는 그곳을 통과하며 접하는 이국의 산수와 풍경, 시적 영감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¹¹ 한편 홍경모의 조부 홍양호는 1782년에 부사로, 1794년에 정사로 두 차례 연행하

-
- 9 홍경모가 북경에 체류하면서 쓴 시는 남아 있지 않고 산문 형식의 『玉河涉筆』만 전하는데, 그 내용이 《연행시화첩》과는 무관하다. 홍경모의 여행록 개관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임유의, 앞의 논문, 34~50쪽, 105~154쪽; 김동건, 앞의 논문, 93~139쪽 참조.
- 10 洪敬謨, 『耘石外史續編』(4) 「遼野程史引」, “白鴨江以外 關內二千里之間 遼野居三分之二焉 故行人之跋涉間關 於遼野最苦 大地之遊歷觀覽 於遼野最多 … 過路所經 無非奇觀 而城池寺廟之宏麗 市舖堡店之繁華 以至草木禽獸之微 踰蹟瞻事之遺 罔不搜刮”. 『遼野程史』는 『요야기정』과 같은 책이다. 번역문은 김동건, 위의 논문, 128쪽에서 재인용.
- 11 홍경모의 행인 의식에 대해서는 이승수, 「洪敬謨의 行人 의식과 중국 인식」, 『고전 문학연구』 제43호(2013), 507~536쪽 참조.

였고, 그 또한 이동하면서 일기가 아닌 시를 지어 『연운기행(燕雲紀行)』과 『연운속영(燕雲續詠)』을 편찬했다. 홍경모는 홍양호 사후 30여 년이 지난 1830년에 동지겸사은사의 부사로 사절단을 이끌었고, 4년 뒤에는 진하겸사은사의 정사로 두 번째 연행을 하였다. 그리고 조부가 그랬듯이 자신의 연행시를 모은 『사상운어』와 『사상속운』을 편찬했던 것이다. 특히 홍양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각별했던 홍경모는 자신이 조부와 마찬가지로 한 번은 부사로, 한 번은 정사로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일을 기쁘게 여겼다. 2차 연행 때는 홍양호 화운시집까지 만들었으니 홍경모가 연행하는 내내 조부를 의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²

평양과 같은 국내 여정만이 아니라 중국 여정에서도 그가 언급하거나 방문한 명승고적이 홍양호의 동선과 밀착되어 있음은 두 사람의 연행록이 증명한다. 한 예로 홍경모는 1차 연행 때 조부가 1783년 연행 시 고구려 안시성(安市城) 터를 찾아가 바위에 글씨를 새긴 일을 상기하며 「과안시성(過安市城)」을 지었고, 1834년 2차 연행 때는 기어코 그 현장을 방문하였다.¹³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안시성 위치에 대한 의견이 갈렸으나 홍경모는 위치 고증보다 조부 홍양호와의 인연을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태도는 《연행시화첩》에 실린 연행도의 화제 선정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면 연행도를 제작해 연행시와 합철한 시기는 언제일까. 홍경모의 두 차례 연행에 화원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오가는 도중에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행시화첩》의 모든 화폭에 관서(款書)를 남긴 화가 ‘문재(文齋)’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는데, 누가 되었든 홍경모와 함께 연행

12 洪敬謨, 『耘石外史續編』(4) 「敬次王考文獻公燕雲續詠詩韻并序」. 이 화운시집에는 『燕雲續詠』뿐 아니라 홍양호가 평안도관찰사로 재임하면서 쓴 시를 모은 『關西錄』의 시 5수가 포함되었다. 임유의, 앞의 논문, 143~144쪽.

13 洪敬謨, 『槎上韻語』 「過安市城」; 洪敬謨, 『遼野記程』 「安市城記二」.

한 인물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시화첩에 경인년과 갑오년 시가 섞여 있는 것은 두 번의 여행을 마친 이후에 그림이 제작되었음을 방증한다. 여행도의 계절색은 1830년 9월에 출발한 동지사행보다 1834년 2월에 출발해 7월에 복명(復命)한 진하사행에 가깝다. 홍경모가 1, 2차 여행 경험을 종합해서 시를 선정하고 그림 제작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하겠다.

여기서 홍경모가 누차 자신의 시문 선집(選集)을 만들었고, 말년에는 전체 저작물을 유형별로 분류해 집대성하려 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33년(60세), 그는 15세 이후에 쓴 글들을 문과에 급제한 1809년을 기준으로 『운석외사(耘石外史)』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또한 환갑을 맞은 1834년부터 쓴 글은 속편으로 분류해 훗날 “세 편을 합해 수십 권이 된다.”고 하였다.¹⁴ 나아가 나이가 일흔을 넘기자 『총사(叢史)』 편찬에 나섰음이 확인된다.

지금 칠순을 넘김에 아침 이슬처럼 장차 사라질 것이기에 이에 상자에 숨겨두었던 것을 모아 검열하니 『외사(外史)』 3편과 『유사(遊史)』 1부가 있다. 그러나 하찮은 것도 함께 쌓아둔 것으로 구슬과 자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이어서 법도에 어긋난다. ... 그러므로 유별로 모아 편(編)을 나누고 차례대로 편집하여 책을 이루니 모두 20부인데, 부(部)마다 각각 시·문·잡저가 있으며 모두 110권이다.¹⁵

위의 「총사총목인(叢史總目引)」에서 홍경모는 자신이 전집(全集)을 만들

14 洪敬謨, 『耘石外史後編』 「外史後編序」; 洪敬謨, 『叢史』(7) 「外史續編引」.

15 洪敬謨, 『叢史』(7) 「叢史總目引」, “今年過七耄 朝露將晞 乃捫撝巾篋 蒼卒緝閱 有外史三編 遊史一部 而澍渤並蓄 珠礫雜混 倘規破矩 ... 故遂彙類分編 纂次成帙 凡二十部 而部各有詩文雜著 總一百十局”; 이근선, 「관암 홍경모의 시문집과 그 내용」, 이종목(편), 앞의 책, 41~102쪽.

고자 하는 이유와 세부 목록, 추진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하였다. 비록 그 소망을 실현하지는 못했으나 그가 자신의 족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후세에 전하려는 의지가 강했음은 분명하다. 그 범주를 연행록으로 좁혀 보아도 홍경모가 기록과 정리에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가 잘 드러난다. 연행록 관련 서(序)·인(引)·발미(跋尾)는 그가 애초 구상했던 연행록의 내용과 규모를 짐작케 해준다. 홍경모는 자신의 연행록에 대해 기본적으로 임금에게 복명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사가(史家)로서 기유기사(記遊記事)”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⁶ 또한 「연운대관서(燕雲大觀序)」에서는 “백발이 되도록 조롱 속에 갇혀 조선 강토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사신으로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번 연행은 압록강 북쪽, 요야 서쪽에서 연경에 이르기까지 수천 리 사이에 성지·궁궐의 장려함과 시포·보점의 멀고 가까움, 초목·금수의 미세함, 멀리는 제도·연혁의 연원, 가까이는 풍화·변화의 계기를 모두 포괄하여 남김없이 시에 수록하였으니 이것을 대관(大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¹⁷

위 글의 행간에서 평소 꿈꾸어 온 연행 기회를 얻은 홍경모가 기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와 서술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집안은 물론 주변에 북경에 다녀온 인사들이 많았던 만큼 홍경모가 연행에 건 기대는 지극히 자연스러웠다고 하겠다. 이 「연운대관서」의 일부 내용은 앞서 인용한 「요야정사인」의 내용과 겹친다. 이를 통해 홍경모가 연행시문에 노정에서 접한

16 洪敬謨, 『耘石外史續編』 「燕槎紀略序」; 임유의, 앞의 논문, 105~130쪽.

17 洪敬謨, 『耘石外史後編』 「燕雲大觀序」, “今余之行自鴨江以北 遼野以西 至于燕 數千里之間 城池宮闕之壯麗 市舖堡店之遐邇 草木禽獸之細微 遠而制度沿革之由 近而風化燠變之機 包羅搜括 盡入於詩 非不曰大觀”. 홍경모의 연행록 구상과 현전 연행록에 대해서는 임유의, 위의 논문(2015), 105~130쪽 참조.

경관과 풍속, 지식과 정보를 낱알이 수록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 태도는 홍경모가 자신의 연행 체험의 시각화, 즉 연행도 제작을 결심하는 동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화폭에 되살린 성지·궁궐·시포·보점·초목·금수·고적·승경 등은 문자기록과는 결이 다른 의미와 감회를 자아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행도 제작 시기는 『총사』 편찬을 진행한 시기, 즉 70대에 접어든 이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언급한 대로 홍경모와 연행을 함께 한 화원은 없었고, 그 자신이 문인화가도 아니어서 1784년 동지사행의 부사로 연행한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처럼 직접 연행도를 그릴 수는 없었다. 사실 홍경모 집안은 여타 경화세족처럼 대대로 고동서화를 애호하고 수장하였다.¹⁸ 그의 고조부 운와(芸窩) 홍중성(洪重聖, 1668~1735)은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가르침을 받았고, 조유수(趙裕壽)·이병연(李秉淵)·이하곤(李夏坤)·신유한(申維翰) 등과 시문서화로 교유하였다. 홍중성은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이 이병연을 위해 그린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과 작자미상의 《관동십경첩(關東十景帖)》 같은 실경산수화에 제시(題詩)하거나 감상한 바 있다.¹⁹ 조부 홍양호 대부터는 선대 유묵의 정리와 역대 명가의 목적이나 고비 답본, 서예 법첩, 기완(器玩)의 수집 활동이 보다 적극화되었다.

홍경모는 가장(家藏) 유물을 보관한 사의당(四宜堂)의 내력과 수장품에 관한 내용으로 『사의당지(四宜堂志)』를 저술하였다. 그는 『대동장고(大東掌攷)』에서 우리나라 역대 서가와 화가 200여 명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18 홍경모와 홍씨 집안의 서화고동 취미에 대해서는 이군선, 앞의 논문(2003), 150~168쪽; 신영주, 「18, 19세기 홍양호가(家)의 예술 향유와 서예 비평」, 『민족문화사 연구』 제18권(2001), 398~434쪽; 이종목,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四宜堂」, 『한문학보』 제19권(2008), 567~592쪽; 황정연, 「18·19세기 풍산홍씨(豊山洪氏) 이계(耳溪) 집안의 서화(書畵) 수장(收藏)」, 『역사문화논총』 제4호(2008), 231~263쪽 참조.

19 박은순, 『金剛山圖 연구』(서울: 일지사, 1995), 211쪽; 황정연, 위의 논문(2008), 235쪽.

홍경모가 평소 직접 화필(畫筆)을 들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왕실행사기록화 관련 기록을 남겼다. 1795년 윤2월에 거행된 정조의 화성(華城) 원행(園幸)과 관련되는 「화성행행도기(華城幸行圖記)」와 1817년의 효명세자(孝明世子) 입학식과 연계되는 「왕세자입학도기(王世子入學圖記)」 등이다.²⁰ 「화성행행도기」와 같은 화성 관련 기록은 《연행시화첩》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한편 홍경모가 평양에 머물던 1792년에는 중앙절을 맞아 대동강을 선유하다가 동행한 운화(雲華) 이사인(李士仁)이 측석에서 <어연구우도(漁烟鷗雨圖)>를 그리고 시를 짓자 자신이 그림 아래 '시중화화중시(詩中畫畫中詩)'라는 여섯 글자를 썼다고 유람 도중 시화를 즐긴 사실을 기록하기도 했다.²¹

그러나 홍씨가 인물들은 대체로 그림보다 글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 그 때문에 40여 명의 연행사를 배출했음에도 연행도 제작에 나선 인물이 없었고, 홍경모 역시 연행 당시에는 문자기록을 작성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행시화첩》에 실린 연행도가 제작된 계기는 나중에 다른 데서 마련되었고, 실제 연행 경험이 없는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연행도의 주문을 받은 화가 '문재'는 홍경모의 시문과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해 그림을 완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연행시화첩》은 홍경모가 자신의 자취를 후세에 전하고자 『총사』 편찬을 구상하면서 제작한 연행록의 또 다른 버전(version)으로 추정된다.

20 洪敬謨, 『冠巖全書』(13) 「華城幸行圖記」; 洪敬謨, 『冠巖全書』(14) 「王世子入學圖記」.

21 洪敬謨, 『冠巖存藁』(2) 「重陽舟遊記」.

Ⅲ. 《연행시화첩》의 현상과 시화의 구성

현재 《연행시화첩》은 각각 국내와 중국 여정의 시화를 합철한 두 권의 첩으로 장황되어 있다. 표지는 푸른색 비단으로 감쌌고 종이 바탕에 시를 묵서했으며 수묵채색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 장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화폭 크기는 세로 27.2센티미터, 가로 41.1센티미터 정도이다. 연행도는 각 장면의 여백에 화가의 호 ‘문재’라는 관지(款識)와 함께 화제(畫題)가 묵서되어 있다.²² 그중 절반가량은 제목이 중서(縱書)가 아니라 횡서(橫書)로 써져 있는데,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제작된 작자미상의 《관서명구첩(關西名區帖)》에서도 같은 방식이 확인된다.²³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흰색 호분이 변색된 부분이 꽤 많다.²⁴

제1권 국내 여정은 묵서 한 점과 21편의 시, 10폭의 그림으로 구성되었다. 서두의 첫 장은 묵서 대자(大字) “소몽(笑夢)”과 〈해신도(海神圖)〉가 장식하고 있어서 실제 연행도는 9폭이다.²⁵ 두 번째 장에는 ‘서교전회(西郊錢會)’라는

22 현재 ‘文齋’라는 호를 사용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연행도의 모든 화면에 화제와 함께 묵서되었다는 점에서 문재는 연행도 제작을 맡은 화가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후 ‘문재’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연행시화첩》의 제작 경위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23 개인 소장으로 전하는 작자미상의 《關西名區帖》에 대해서는 박정애, 「朝鮮後期 關西名勝圖 연구」, 『美術史學研究』 제258권(2008b), 114~129쪽.

24 일부 장면은 화제가 묵서된 여백 공간이 협소하여 개장 시 가장자리가 약간 잘려나간 듯하다. 제1권(국내 여정)의 마지막에 실린 天淵亭 시 부분에서는 윗부분이 잘린 글자들이 몇 개 발견된다.

25 〈海神圖〉에는 ‘문재’라는 관서가 없고 화풍도 달라서 다른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시화첩 첫머리에 묵서 “笑夢과 〈海神圖〉가 실린 이유는 흥경도가 佛家와 道家에 배타적이지 않은 유학자였던 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소몽’의 용례로는 고려 말의 문신 陳澹가 사행 길에 읊은 『詠廣寧府十三山』과 申翼相의 『北關錄』[『醒齋遺稿』(5)]에 실린 시 「除夕」, 韓章錫이 함경도관찰사로 재직하며 쓴 「七月六日登知樂亭」[『眉山集』(3)]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작자가 타향에서 읊은 시

제목에 이어 경인년과 갑오년에 쓴 시를 써넣었다(그림1 참조). 다음 장 오른쪽 면에 이들 시와 짝을 이루는 그림 〈서교전연〉이 배치되었다(그림2 참조). 이처럼 시에 이어 그림을 배치하는 방식이 반복되는데, 전체 순서와 내용은 표1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연광정〉과 짝을 이루는 제9장의 시 세 편 중 말미에 갑오년 연행 때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시를 차운했다고 밝힌 「갑오차루사경산운(甲午次樓使經山韻)」을 제외한 모든 시가 홍경모의 연행시집에서 확인된다.²⁶ 시화첩의 일부 시는 제목이 생략되었고 시집과 다른 제목을 쓰기도 했으나 시구는 『사상운어』와 『사상속운』, 『경차왕고문헌공연운속영시운』에 소수(所收)된 시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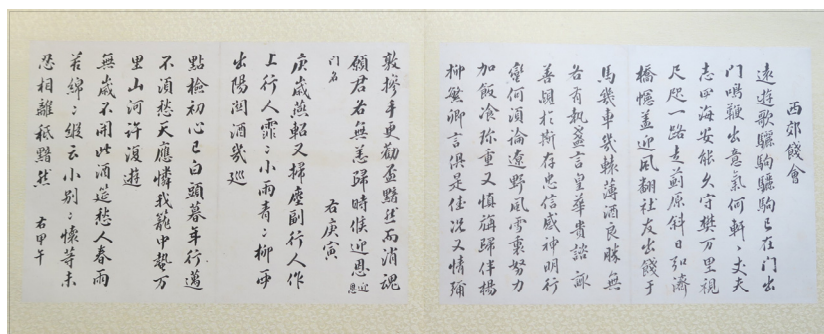


그림1-《연행시화첩》 제1권 제2장, 시

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1848년에 동지사행한 李有駿의 『夢遊燕行錄』처럼 연행을 꿈에 비유한 사례도 있다.

- 26 經山 鄭元容도 1831년 동지사행을 하었는데, 그는 홍양호의 묘지명과 홍경모의 신도비명을 지을 정도로 홍경모와 친분이 깊었다. 鄭元容, 『經山集』(15) 「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洪公敬謨神道碑」; 鄭元容, 『經山集』(17) 「判中樞府事兼吏曹判書洪公良浩墓誌銘」 참조.



그림2- 작자미상, 〈서교전연〉, 《연행시화첩》 제1권, 19세기,
지본채색, 27.2×41.1cm, 개인 소장

표1-홍경모의 《연행시화첩》(제1권, 국내 여정)의 구성과 연행시²⁷

순서	연행시화첩	연행시
1-1	書) 笑夢	-
1-2	〈神仙圖〉	-
2	詩) 西郊餞會(庚寅; 甲午)	『槎上韻語』 「弘濟橋別社友」; 『槎上續韻』 「弘濟橋別社友」
3-1	〈西郊餞筵〉	-
3-2	詩) 晚發弘濟院(庚寅; 甲午)	『槎上韻語』 「早發」; 『槎上續韻』 「冒雨抵碧蹄」
4-1	〈弘院啓行〉	-
4-2	詩) 花石亭(甲午); 冰渡臨津(庚寅)	『槎上續韻』 「花石亭」; 『槎上韻語』 「冰渡臨津」
5-1	〈花石亭〉	-
5-2	詩) 月波樓(庚寅; 甲午)	『槎上韻語』 「月波樓」; 『槎上續韻』 「月波樓」
6-1	〈月波樓〉	-
6-2	詩) 箕城(庚寅)	『槎上韻語』 「水渡滄江入箕城」·「留宿箕城」

27 표1의 ‘순서’는 시화첩의 장과 면을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1-1은 제1장 오른쪽 면을, 1-2는 제1장의 왼쪽 면을 의미한다. 또한 시와 그림을 구분하기 위해 畫題는 부호 ‘〈 〉’ 안에 기입하였다. 시화첩 제2권의 구성을 정리한 표2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순서	연행시화첩	연행시
7	詩) 제목 없음(甲午)	『槎上續韻』 「西京曲」
8-1	詩) 제목 없음(甲午)	『槎上續韻』 「西京曲」
8-2	〈箕城〉	-
9	詩) 練光亭(庚寅); 敬次文獻公板上韻(甲午); 次樓使經山韻(甲午)	『槎上韻語』 「練光亭」; 『敬次王考文獻公燕雲續詠詩韻』 「練光亭」; 미상
10-1	〈練光亭〉	-
10-2	詩) 浮碧樓(甲午)	『槎上續韻』 「與副三价乘舟上浮碧樓」
11-1	〈浮碧樓〉	-
11-2	詩) 百祥樓(庚寅)	『槎上韻語』 「百祥樓歌次王考文獻公以副行人留題板上韻」· 「壬子秋陪文獻公巡節登百祥樓眺望是重陽日也 今以使節過此居然爲四十星霜遂愴然而題」
12-1	詩) 敬次文獻公板上韻(甲午)	『敬次王考文獻公燕雲續詠詩韻』 「百祥樓」
12-2	〈百祥樓〉	-
13-1	詩) 聽流堂(甲午)	『敬次王考文獻公燕雲續詠詩韻』 「聽流堂」
13-2	詩) 天淵亭五絕(甲午)	『槎上續韻』 「天淵亭五絕」
14-1	詩) 雪中登天淵亭(庚寅)	『槎上韻語』 「雪中與上价登天淵亭」
14-2	〈聽流堂〉	-

중국 여정에 해당하는 시화첩 제2권은 연행도 26폭과 시 1수로 구성되었다. 국내 여정과 비교해 거의 3배나 되는 그림 양과 달리 시는 마지막 장에 『사상속운』에 실린 「화표주(華表柱)」의 끝부분, 즉 “또한 사람들은 옛날과 다르건만/ 옛 터에 봄은 돌아와 꽃이 저절로 피네/ 그대 요동 사람에게 묻노니 그대는 어찌 아는가/ 내가 행인으로 다시 온 학인 것矣(又人民異昔日 故墟春回花自發 問爾遼人爾何識 行人我是重來鶴).”이라는 구절만 묵서하였다(그림3 참조). 제2권 네 번째 장에 〈화표주〉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데도 이처럼 시구를 마지막 장에 따로 편집한 데는 특별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을 학(鶴)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 정령위(丁令威)에 비유하여 사신으로서 재차 요동 땅을 밟은 감회를 표현해 흥미롭다.²⁸

이처럼 중국 여정은 그림으로만 구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한데, 26폭의 그림과 연계되는 홍경모의 연행시문은 표2와 같이 정리된다. 직접 시화첩에 옮겨 적지는 않았으나 그림 제작의 밑천으로 쓰였을 시들이 『사상운어』와 『사상속운』에 실려 있다. 또한 산문 형식의 『요야기정』도 화제 및 화면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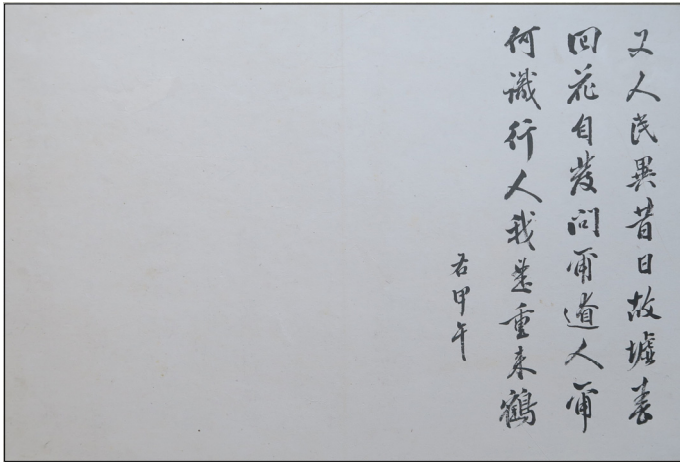


그림3-《연행시화첩》 제2권 제14장 우면, 시

한편 화면 규격과 관서, 화풍 등으로 미루어 《연행시화첩》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이는 그림 두 폭이 더 있다. <안시고성>과 <대릉하>로서 선행연구에서는 <서교전연>과 함께 화면 내용을 소개하고 제작 시기를 19세기 후반

28 이 시구는 '遼東 사람 丁令威가 신선이 되고 나서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다시 고향을 찾아와 요동 성문의 華表柱 위에 내려앉았다.'는 故事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정령위 고사는 조선 문인들이 즐겨 인용하였고 학 그림의 畫題로도 각광받았다. 박정애, 「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鶴의 이미지와 표현 양상」, 『미술사연구』 제26호(2012), 125~127쪽 참조.

으로 상정하였다.²⁹ 그중 《연행시화첩》 제1권에 실려 있는 〈서교전연〉 외 나머지 두 폭의 현재 행방은 알 수 없다. 《연행시화첩》의 상황 상태로 보아 20세기 들어와 개장되기 전, 유전 과정에서 〈안시고성〉과 〈대릉하〉가 분리된 것으로 생각된다.³⁰ 이는 제작 당시 더 많은 연행도가 그려졌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추후 또 다른 화폭이 발견될 여지도 있다.

표2-홍경모의 《연행시화첩》(제2권, 중국 여정)의 구성과 연행 시문

순서	제목	연행시	『요야기정』
1-1	〈通州風帆〉	『槎上韻語』 「渡路河入通州」; 『槎上續韻』 「過通州」	「通州記」
1-2	〈嘔血臺〉	『槎上韻語』 「嘔血臺」; 『槎上續韻』 「乾柴嶺望嘔血臺」	「嘔血臺記」
2-1	〈澄海樓〉	『槎上續韻』 「澄海樓」	「望海臺記」
2-2	〈山海關〉	『槎上韻語』 「入山海關」; 『槎上續韻』 「山海關」	「山海關記」
3-1	〈清風臺〉	『槎上續韻』 「清風臺」	-
3-2	〈十三山〉	『槎上韻語』 「十三山」; 『槎上續韻』 「十三山」	「十三山記」
4-1	〈華表柱〉	『槎上續韻』 「華表柱」	-
4-2	〈醫巫閭全圖〉	『槎上韻語』 「醫巫閭山」; 『槎上續韻』 「望醫巫閭山」	「醫巫閭山記」
5-1	〈閭陽縱馬〉	『槎上續韻』 「閭陽前郊 轡者五六百匹蔽路而來 健兒二人騎馬隨後 昂首齊馳 不仄不亂 可見牧御得宜」	-
5-2	〈薊邱烟樹〉	『槎上韻語』 「薊門烟樹」	-
6-1	〈射虎石〉	『槎上續韻』 「射虎石」	「射虎石記」
6-2	〈昌黎奇峯〉	『槎上韻語』 「文筆峯」; 『槎上續韻』 「望文筆峯[在昌黎縣]」	「文筆峯記」
7-1	〈塔山望海〉	-	「寧遠州記」
7-2	〈鷄鳴寺〉	『槎上韻語』 「宿娘子山店」; 『槎上續韻』 「鷄鳴寺」	「雞鳴寺記」
8-1	〈醫巫閭山〉	『槎上韻語』 「醫巫閭山」; 『槎上續韻』 「望醫巫閭山」	「醫巫閭山記」

29 정은주는 그림에서 화제를 횡으로 쓴 점과 인물 묘사와 복식의 채색 등을 지적하며 19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하였다. 정은주, 앞의 책(2012), 304~306쪽.

30 〈안시고성〉·〈대릉하〉·〈서교전연〉은 1977년에 발간된 『韓國民畫』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당시 책에서는 화면에 기입된 畫題를 따르지 않고 西郊錢別圖·安市城圖·渡河圖라는 제목을 썼다. 《연행시화첩》에 〈서교전연〉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개장된 시기는 1977년 이후로 볼 수 있다. 김호연, 『韓國民畫』(서울: 경미문화사, 1977) 참조.

순서	제목	연행시	『요야기정』
8-2	〈瀋陽全城〉	『槎上韻語』 「盛京」; 『槎上續韻』 「瀋陽八絶」	「盛京記」
9-1	〈瀋陽宮闕〉	『槎上韻語』 「盛京」; 『槎上續韻』 「瀋陽八絶」	「盛京記」
9-2	〈關帝廟〉	『槎上韻語』 「謁關帝廟」; 『槎上續韻』 「關帝廟」	「關帝廟記」
10-1	〈北鎮廟〉	『槎上韻語』 「廣寧店夜望舊廣寧懷古走成長句」	「廣寧縣記」
10-2	〈墩臺〉	『槎上續韻』 「墩臺」	-
11-1	〈威遠臺〉	『槎上韻語』 「威遠臺」; 『槎上續韻』 「威遠臺」	「威遠臺記」
11-2	〈烟臺〉	『槎上韻語』 「烟臺」; 『槎上續韻』 「烟臺」	「烟臺記」
12-1	〈祖氏石闕〉	『槎上韻語』 「祖氏石牌樓」; 『槎上續韻』 「祖氏石闕」	「祖氏石闕記」
12-2	〈白堽堡塔〉	『槎上續韻』 「白塔堡塔」	-
13-1	〈遼陽白堽〉	『槎上續韻』 「白塔」	「白塔記」
13-2	〈牛鼎〉	『槎上續韻』 「牛鼎[在豐潤縣學]」	「牛鼎記」
14-1	詩	『槎上續韻』 「華表柱」	-
韓國民畫	〈安市古城〉	『槎上韻語』 「過安市城」	「安市城記」
韓國民畫	〈大凌河〉	『槎上韻語』 「大凌河遇大風」	「大凌河記」

이와 같이 국내와 중국 여정을 나누어 편집한 《연행시화첩》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그림 순서에 있다. 시가 곁들여진 제1권 국내 여정의 그림은 홍경모의 연행 노정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림이 주를 이루는 제2권 중국 여정은 그림이 실제 노정을 무시한 상태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유전 과정에서 시화첩이 파첩되어 원래 순서가 어그러졌고, 그렇게 전승된 그림들을 후대에 새로 장황하면서 생겨난 오류라고 생각된다. 개장 시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짝을 이루는 시까지 구비되어 있는 국내 여정의 편집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연행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특히 중국 노정에 대한 지식이 얇은 상황에서 개장이 이루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홍경모의 연행시문을 통해 파악한 행로를 기준으로 연행도 총 37폭을 재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홍경모의 연행 노정에 따라 재배열한 《연행시화첩》의 연행도³¹

순번	게재 면	연행도	소재지	순번	게재 면	연행도	소재지
1	1-3-1	〈西郊餞筵〉	서울	19	2-4-2	〈醫巫閭全圖〉	광녕
2	1-4-1	〈弘院啓行〉	서울	20	2-8-1	〈醫巫閭山〉	광녕
3	1-5-1	〈花石亭〉	파주	21	2-10-1	〈北鎮廟〉	광녕
4	1-6-1	〈月波樓〉	황주	22	2-5-1	〈閭陽縱馬〉	여양
5	1-8-2	〈箕城〉	평양	23	2-3-2	〈十三山〉	금주
6	1-10-1	〈練光亭〉	평양	24	韓國民畫	〈大凌河〉	대릉하
7	1-11-1	〈浮碧樓〉	평양	25	2-7-1	〈塔山望海〉	영원
8	1-12-2	〈百祥樓〉	안주	26	2-1-2	〈嘔血臺〉	영원
9	1-14-2	〈聽流堂〉	용천	27	2-12-1	〈祖氏石關〉	영원
이하 중국 여정				28	2-11-1	〈威遠臺〉	산해관
10	韓國民畫	〈安市古城〉	요양	29	2-10-2	〈墩臺〉	산해관內
11	2-7-2	〈鷄鳴寺〉	요양	30	2-2-2	〈山海關〉	산해관
12	2-9-2	〈關帝廟〉	요양	31	2-2-1	〈澄海樓〉	산해관
13	2-13-1	〈遼陽白堊〉	요양	32	2-6-2	〈昌黎奇峯〉	창려
14	2-4-1	〈華表柱〉	요양	33	2-6-1	〈射虎石〉	영평
15	2-12-2	〈白堊堡塔〉	백탑보	34	2-3-1	〈淸風臺〉	영평
16	2-8-2	〈瀋陽全城〉	심양	35	2-13-2	〈牛鼎〉	풍운
17	2-9-1	〈瀋陽宮闕〉	심양	36	2-5-2	〈薊邱烟樹〉	계주
18	2-11-2	〈烟臺〉	산해관外	37	2-1-1	〈通州風帆〉	통주

《연행시화첩》의 연행도는 장면에 따라 경관을 포착한 방식이나 묘사법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의무려산은 홍경모가 산에 오르지 않은 채 멀리서 조망한 경관이다(그림4 참조). 관제묘의 경우 사절단이 거치는 고을마다 있는 시설이었으나 홍경모의 시문에 적시된 사우에 맞춰 배열하였다. 또한 홍경모는 『요야기정』의 「연대기」에서 ‘연대는 명나라 유적으로 산해관 밖에 있는 것은 연대(烟臺)라 하고, 산해관 안에 있는 것은 돈대(墩臺)라 부른다.’고 하였다. 홍경모와 비슷한 시기인 1832년에 서장관으로 동지사행한 김경선(金景善, 1788~1853)은 그의 연행록에서 ‘토정자(土井子)에서부터

31 표3의 ‘게재 면’은 시화첩의 권, 장, 면의 수를 표시한 것으로 1-1-1은 제1권(국내 여정), 제1장 오른쪽 면을, 2-1-2는 제2권(중국 여정) 제1장의 왼쪽 면을 가리킨다.

산해관까지, 그 밖에도 관문과 요새 곳곳에 연대가 있으며 척계광(戚繼光)이 쌓았다는 800개의 망대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고 그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다.³² 즉 연대와 돈대는 하나가 아니지만 홍경모가 시를 읊은 지점에 맞춰 전체 그림의 순서를 조정한 것이다(표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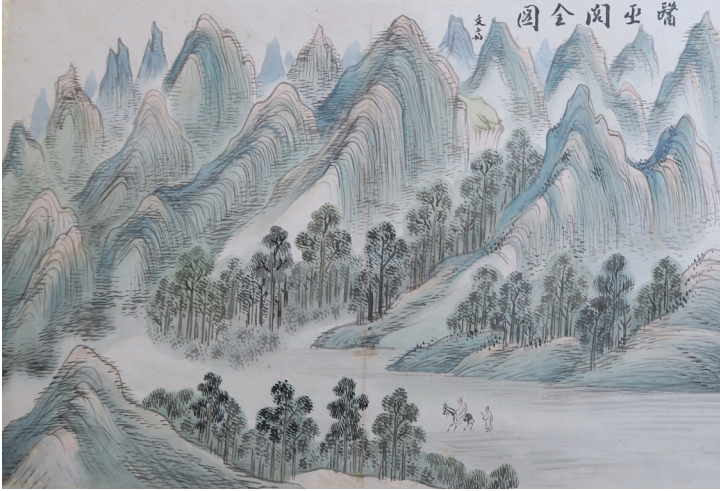


그림4-작자미상, 〈의무려전도〉, 《연행시화첩》 제2권

IV. 《연행시화첩》 연행도의 회화적 특징

홍경모의 연행도 37폭은 내용에 따라 크게 국내 여정과 중국 여정으로 나뉜다. 화제는 모두 그가 북경을 오가며 거처거나 유숙한 고을과 인근에 자리한 경승과 풍속, 시설물이다. 전체 그림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는 기록과 재현이라 할 수 있지만, 소기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32 金景善, 『燕輦直指』(2) 「烟臺記」.

면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연행도의 제작 방식과 회화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국내 여정의 연행도

《연행시화첩》 제1권에는 서울에서 출발해 의주에 이르는 국내 여정의 연행도 9폭이 실려 있다. 첫머리를 장식하는 <서교전연>과 <홍원계행>은 궁궐에 들어가 숙배(肅拜)를 마친 삼사신 일행이 도성을 벗어난 이후 참석하는 전별연(餞別宴)을 제재로 삼았다(그림2, 그림5 참조). 조선시대에는 관례적으로 사신을 전송하는 공적, 사적 전별연이 몇 차례씩 행해졌다.³³ 시화첩에는 홍경모가 1, 2차 연행 때 쓴 시 네 수가 그림과 함께 편집되었는데, 다음의 시 「서교전회(西郊餞會)」는 1830년 9월 30일 서교와 홍제원 일대에서 가졌을 전별연의 분위기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표1 참조).

遠游歌驪駒	먼 길 가는데 여구가 부르니
驪駒已在門	검은 망아지 이미 문에 있네
出門鳴鞭出	문을 나가며 채찍질하니
意氣何軒軒	의기는 참 얼마나 대단한가
丈夫志四海	장부가 사해를 경영하는 데 뜻을 두니
安能久守樊	어찌 오랫동안 변방을 지키겠는가
萬里視尺咫	만 리를 지척으로 보니
一路走薊原	한 번에 계주의 언덕까지 달리누나
斜日弘濟橋	석양이 홍제교에 이르니
幟蓋迎風翻	수레 덮개 휘장이 바람에 펄럭이네
社友出餞于	사우들이 전별하러 나오니
馬幾車幾轅	말과 수레는 얼마나 많은가

33 김지현, 「조선 北京使行의 漢陽 餞別 장소 고찰」, 『한문학보』 제38집(2018), 3~28쪽.

薄酒良勝無	박주라도 참으로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各有執盞言	각각 잔을 들면서 말하기를
皇華貴諮諏	사행은 묻고 살피는 일이 중요하니
善規於斯存	잘 살피려는 마음 여기에 간직하게나
忠信感神明	충신으로 신명을 감동시켜야 하니
行蠻何須論	오랑캐 땅에 가는 걸 어찌 굳이 따지겠는가
遼野風雪裏	요동 들판은 바람 불고 눈 내리는 곳이니
努力加飯飡	더욱 밥 잘 먹으려 노력하게나
珍重又愼旃	진중하고 또 조심하기를
歸伴楊柳繁	돌아올 때는 무성한 버들과 짝할 테니
卿言俱是佳	그대들의 말 모두 좋은데
況又情彌敦	더욱이 또 정이 깊어지네
憵手更勸杯	손을 맞잡고 다시 술을 권하지만
黯然而消魂	시름겹게 낮이 달아나네
願君各無恙	원컨대 그대들 각기 별 탈 없어
歸時候迎恩	돌아올 때 영은문에서 기다려주기를

위의 오언시에는 중국 땅을 밟을 생각에 한껏 고양된 흥경모의 심상과 전송 나온 친우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전별연장의 분위기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시가 『사상운어』에는 ‘홍제교별사우(弘濟橋別社友)’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어서 서교가 아니라 홍제원에서 가진 주연(酒宴)을 읊었음이 드러난다.³⁴ 〈서교전연〉 화면에 상점과 민가만 보일 뿐 모화관(慕華館)이나 영은문(迎恩門)이 등장하지 않고 다음 장면인 〈홍원계행〉의 화면 내용과 유사하다. 이를 검재 정선이 1731년에 사행에 나선 이춘제(李春躋)를 위해

34 〈서교전연〉에 이어 〈홍원계행〉과 짝을 이루는 시 「晚發弘濟院」도 『槎上韻語』에는 홍제원을 벗어나 고양 벽제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출발하며 쓴 시 「早發」을 옮겨 쓴 것이다.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의 내용이나 정서가 그림 내용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린 <서교전의도(西郊餞儀圖)>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단번에 드러난다 (그림6 참조). 따라서 두 폭의 그림은 모두 홍제원 일대에서 벌어진 전별연과 사절단의 이동 행렬을 재현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5-작자미상, <홍원계행>, 《연행시화첩》 제1권



그림6- 정선, <서교전의도>, 1731년, 지본수묵, 26.7×47.0cm, 국립중앙박물관

대개 사절단이나 환송객들은 모화관을 지나 안현(鞍峴, 무악재) 혹은 사현(沙峴)을 넘어 홍제원에 이르렀다. 1712년에 자제군관으로 연행한 김창업(金昌業)의 『노가재연행록』에는 사람들이 밀려든 홍제원 일대 여기저기에 펼쳐진 장막 안에서 술과 고기를 나누는 전별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⁵ 두 차례 연행하면서 홍경모 역시 사대(査對) 장소인 모화관에 마련된 공적 전별연에 참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홍제원으로 이동해 가족과 친인척, 지우들과 편안하고 왈자지껄하게 진행한 비공식적 전별연이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아울러 《연행시화첩》이 공적 용도가 아닌 홍경모의 사적 필요에 의해 제작된 연행기록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서교전연〉과 〈홍원계행〉, 두 폭의 연행도는 주제 면에서 유사 사례가 없는 작품이다. 술잔을 주고받는 광경을 직접 묘사하지는 않았으나 홍제원 일대 풍경을 배경으로 한 풍속화 형식으로 그려 흥미롭기 그지없다. 도로 쪽으로 한쪽 벽을 터서 만든 상점과 상인들, 일산(日傘)과 깃발 같은 의장물, 구성원의 복식, 삼사신 이하 종사관들이 이용하는 말과 가마, 초헌(輶軒), 그리고 구경 나온 백성들까지 화면 속 이야깃거리가 풍성하다. 18세기 이후 유행한 풍속화와 상통하며, ‘문재’가 다양한 소재를 두루 소화할 수 있는 화가였음을 암시한다.

나머지 장면은 특정 건물을 핵심景物로 삼은 전형적인 명승도류 실경산수화이다. 그중 〈화석정〉과 〈월파루〉, 〈청류당〉은 홍제원 전별도와 마찬가지로 현전작이 거의 없는 사례이다. 반면에 관서지역 평양과 안주의 명승도는 비교 자료가 풍부한 편이다. 우선 17세기초 사행 업무와 관련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정(李楨)의 전칭작 《관서명구첩(關西名區帖)》이 전한다.³⁶

35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1) 1712년 11월 3일; 김지현, 앞의 논문(2018), 17~18쪽.

36 정은주는 《關西名區帖》을 1606년 봄에 내조한 명나라 사신 朱之蕃을 맞이하기 위해 의주에 파견된 원접사행에 동행한 畫員 李楨의 작품으로 추정하였다. 정은주, 앞의

이 화첩의 그림 6폭은 서도지역 사행로에 있는 이름난 산과 누정, 객관 등이 제재이다. 그중 ‘관서팔경’에 속하는 평양 <연광정>과 안주 <백상루>는 18세기 이후 제작이 증가하는 관서명승도의 단골 화제로 자리 잡았다.³⁷ 《연행시화첩》에도 두 장면이 모두 포함되었다.

《연행시화첩》의 평양 그림은 <연광정> 외에 <기성>과 <부벽루>까지 총 3폭이나 된다. 평양은 홍경모가 1791년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한 조부 홍양호를 따라가 이듬해 겨울까지 머물렀던 고을이다. 그는 감영에서 지내는 동안 평양의 명승고적 탐방과 대동강 선유(船遊)에 만족하지 않고 홍양호의 도내 순력 길에도 동행하여 성천과 안주 등지의 명소를 방문하였다.³⁸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담은 시문을 상당량 저술하였는데, 『서경유성화첩(西京有聲畵帖)』도 그중 하나이다.³⁹ 홍경모는 시화첩에 묵서한 시 「기성(箕城)」에 ‘평양이 조부가 관찰사로 재임했던 곳이고 자신은 40년이 지나 다시 왔다.’고 주석을 붙인 것처럼 1, 2차 연행 노정에서 쓴 시문에서 그 시절의 추억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표1 참조). 용천 <청류당>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당우였으니 바로 조부의 시판이 걸려 있는 누정이었다. 홍경모의 화제 선정에 개인적 경험, 특히 조부와의 인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책(2012), 76~84쪽.

37 박정애,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94~105쪽; 박정애, 「『관서명승도첩』으로 보는 19세기 평안도 명승의 재현양상」, 『관서명승도첩』(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21), 158~181쪽.

38 洪敬謨, 『冠巖存藁』(2) 「安陵記」.

39 이군선, 「冠巖 洪敬謨의 평양에 대한 인식: 고증학적 학문태도와 관련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35권(2004), 87~107쪽.



그림7-작자미상, 〈백상루〉, 《연행시화첩》 제1권



그림8-작자미상, 〈백상루〉, 《관서십경도》, 18세기 말~19세기 초, 지본담채, 41.7×58.2cm, 국립중앙박물관

이들 세 폭의 평양 그림과 〈백상루〉는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서명승도와 친연성이 강하다(그림7, 그림8 참조). 특히 구도와 화면 구성은 작자미상으로 전하는 《관서명구첩》 유형의 〈연광정〉·

〈부벽루〉·〈백상루〉를 이모(移摹)한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⁴⁰ 또한 〈기성〉과 〈연광정〉은 포착 거리를 약간 조정하고 강상의 선박 수에 차이를 두었을 뿐 구도와 경물 구성이 유사하다(그림9, 그림10 참조). 이 두 폭은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물길과 상부의 평양성, 하단의 장림(長林)으로 이루어진 삼단 구도가 《관서명구첩》의 〈연광정〉과 대동소이하다(그림11 참조). 그중 〈연광정〉 장면 두 폭은 대동문(大同門)부터 연광정, 신수구(新水口), 경과루(鏡波樓)까지 조망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여 상호 관련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경과루는 홍양호가 관찰사 시절 납승대(納勝臺) 터에 중건하고 새로 누명을 부친 누정이다.⁴¹ 대동강으로 시선을 옮기면, 두 폭 다 강상에 정자선(亭子船)을 위시해 유람선들이 떠있으나 시화첩의 〈연광정〉에 훨씬 많은 배들이 운집되어 있어 대규모 사절단의 선유 장면임을 짐작케 한다.



그림9-작자미상, 〈기성〉, 《연행시화첩》 제1권

- 40 작자미상의 《관서명구첩》을 베낀 듯이 그린 〈부벽루〉와 〈백상루〉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關西十景圖》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 《관서명구첩》에는 〈연광정〉까지 세 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연행시화첩》과 밀착성이 더 강하다.
- 41 洪敬謨, 『冠巖存藁』(2) 「鏡波樓記」; 『平壤續志』(1) 樓亭; 이태진·이상태(편), 『朝鮮時代私撰邑誌』 46, 平壤續志(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0), 22쪽.



그림10-작자미상, 〈연광정〉, 《연행시화첩》 제1권



그림11-작자미상, 〈연광정〉, 《관서명구첩》, 18세기 말~19세기 초, 지본담채, 41.7×59.3cm, 개인 소장

두 작품 간의 관계는 저 멀리 화면의 상단 고갯마루에 있는 장대(將臺) 건물로 거듭 확인된다. 장대는 1804년 평양 대화재 때 소실된 이후 재건되지 않은 시설물이다.⁴² 그래서 화재 이후에 제작된 각종 평양 그림에 더 이상 장대가 그려지지 않았다. 즉 장대는 홍경모의 연행 이전에 이미 사라진

건물이었던 것이다. 이는 두 작품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지표이다. 따라서 《관서명구첩》과 같이 평양에 불이 나기 전에 제작된 관서명승도가 시화첩 제작 시 모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른 한편 비교적 느슨하면서 분방한 필묵법과 산언덕에 반진채(半眞彩) 기법을 적용한 점은 《관서명구첩》보다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관서명승도첩》에 가깝다.⁴³

이상과 같이 국내 여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연행시화첩》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사실상 명·청교체기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해로(海路) 사행기록화인 ‘조천도(朝天圖)’ 계열 연행도에 포함된 평안도 객산의 선사포(旋槎浦, 宣沙浦) 혹은 증산의 석다산(石多山)에서 출항하는 사절단의 모습을 포착한 장면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⁴⁴ 더욱이 기존에 알려진 대청 연행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국내 여정 장면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연행시화첩》의 구성이 매우 이례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특히 평양 그림의 양이 많고 홍제원 전별연을 비롯해 화석정과 청류당처럼 흔히 그려지지 않은 화제가 포함된 점은 홍경모가 개인적인 연행 경험을 토대로 기획하고 제작한 시화첩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국 여정의 연행도

홍경모가 조선 사절단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42 『純祖實錄』 4년(1804) 3월 6일; 박정애, 「18-19세기 箕城圖 屏風 연구」, 『古文化』 제74호(2009), 25쪽.

43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관서명승도첩》에 대해서는 박정애, 앞의 논문(2021), 162~179쪽 참조.

44 해로 사행기록화에 대해서는 정은주, 「明清交替期 對明 海路使行記錄畫 研究」, 『명청사연구』 제27집(2007), 189~228쪽 참조.

이후의 여정은 《연행시화첩》 제2권을 포함해 총 28폭의 연행도에 형상화되었다. 그림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이미 알려진 연행도 계열 작품에 포함되지 않는 장면이 대부분이어서 주목을 끈다(표4 참조). 같은 화제가 1760년 작 이필성의 《경진년연행도첩》에 1장면, 강세황이 1784년에 그린 연행도에 1장면씩 포함되어 있다. 1784년 이후의 작품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의 《연행도(燕行圖)》와 4장면이, 1812년 작 이의양(李義養)의 《이신원사생첩(李信園寫生帖)》과는 9장면이 겹친다.⁴⁵ 이 작품들은 모두 홍경모가 연행하기 이전에 제작된 사례이다. 그중 《이신원사생첩》에는 전체 23장면 중 15장면이 북경 이전의 노정에 해당되어 《연행시화첩》과 함께 19세기 들어 요야의 경승을 시각화한 연행도가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말해준다.

표4- 홍경모의 《연행시화첩》의 화제가 포함된 현전 연행도 작품 목록

	화제	현전 연행도 작품
1	구월대	《연행도》(작자미상,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이신원사생첩》(이의양 畫, 간송미술관)
2	징해루	《연행도》, 《이신원사생첩》
3	산해관	《경진년연행도첩》(이필성 畫, 명지대학교 LG연암문고), 《연행도》, 《이신원사생첩》
4	계구연수	《사로삼기첩》(강세황 畫, 국립중앙박물관), 《계문연수》(강세황 畫, 개인 소장), 《이신원사생첩》
5	조씨석궐	《연행도》, 《이신원사생첩》
6	요양백담	《이신원사생첩》
7	탐산망해	《이신원사생첩》
8	위원대	《이신원사생첩》
9	북진묘	《이신원사생첩》

45 정은주, 앞의 책(2012), 273~301쪽; 전영우, 「葆華閣所藏의 「李信園寫生帖」」, 『고고미술』 제9권 제5호(1968), 399~404쪽; 정은주, 「19世紀 初 對淸使行과 燕行圖: 《李信園寫生帖》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제43집(2015), 217~255쪽.



그림12-작자미상, 〈징해루〉, 《연행시화첩》 제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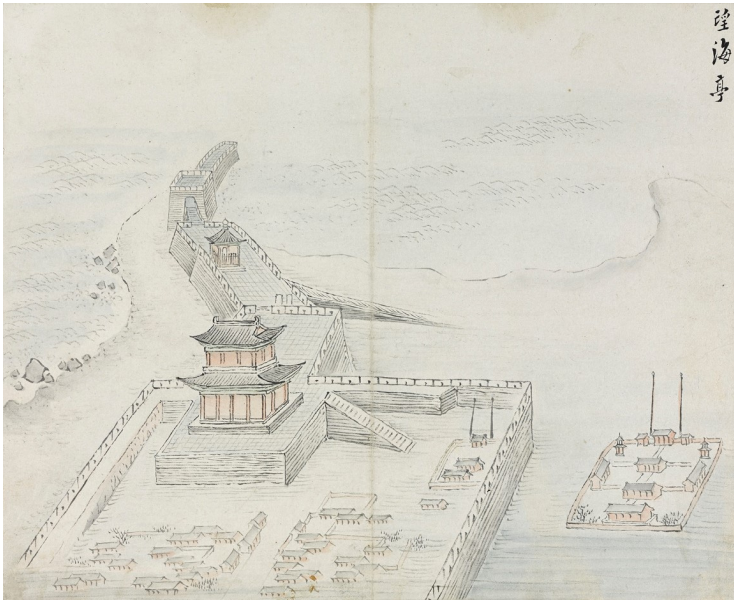


그림13-이의양, 〈명해정〉, 《이신원사생첩》, 1812년, 지본담채, 26.6×32.3cm, 간송미술관

이처럼 몇몇 경관 혹은 고적은 연행도 제작 시 반복적으로 그려졌지만, 화면 구성이나 표현 방식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산해관 동쪽 해변의 영해성(寧海城)에 자리한 누대와 일대 경관을 담은 <징해루>는 같은 경관을 그린 《연행도》와 《이신원사생첩》의 <망해정(望海亭)>과 정반대 시점에서 포착하였다(그림12, 그림13 참조). <계구연수>의 화면 분위기는 계주에 펼쳐진 안개 속 경관을 그린 강세황의 《사로삼기첩(槎路三奇帖)》의 <계문연수>와 비슷하다(그림14, 그림15 참조). 하지만 《이신원사생첩》의 <계문연수>는 연경8경 중 하나인 ‘계문’이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계주가 아니라 북경성 서북쪽 덕승문(德勝門) 밖 들판에 솟은 언덕, 즉 계구(薊邱)의 경치임을 보여주는 화면이어서 《연행시화첩》의 <계구연수>와 다르다(그림16 참조).⁴⁶ 이는 홍경모가 1830년 연행 때 쓴 시 「계문연수」가 북경이 아닌 계주를 통과하며 쓴 점에 부합한다.⁴⁷ 다만 화제를 ‘계문’이 아닌 ‘계구’로 기입한 것은 연행도가 나중에 그려지면서 새로운 정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경 묘사를 생략하고 초점 경물의 형상 묘사에 집중한 <조씨석궐>과 <위원대>는 《이신원사생첩》에 실린 작품들과 상통한다. 따라서 《연행시화첩》의 제작을 위해 화가 ‘문재’가 이전의 연행도를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특정 작품을 모본으로 삼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오직 《연행시화첩》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17폭이나 되어 《연행시화첩》의 양적, 내용적 차별점이 뚜렷하다.

46 연경8경의 하나인 ‘계문연수’는 거의 모든 연행록에서 언급되는 경관이었지만, 오랫동안 북경에서 수백 리 떨어진 계주의 경관으로 오인하였고, 연행도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이전부터 연행한 문사들 사이에 간간히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1803년과 1831년 두 차례 연행한 洪奭周가 위치 비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가 1831년 저술한 「登薊邱記」 이후에는 ‘계문연수’가 북경의 경관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다. 洪奭周, 『淵泉集』(19) 「登薊邱記」; 임영길, 「19세기 前半 燕行錄의 특성과 朝·淸 文化交流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90~95쪽.

47 洪敬謨, 『冠巖遊史』(15) 『槎上韻語』 「薊門烟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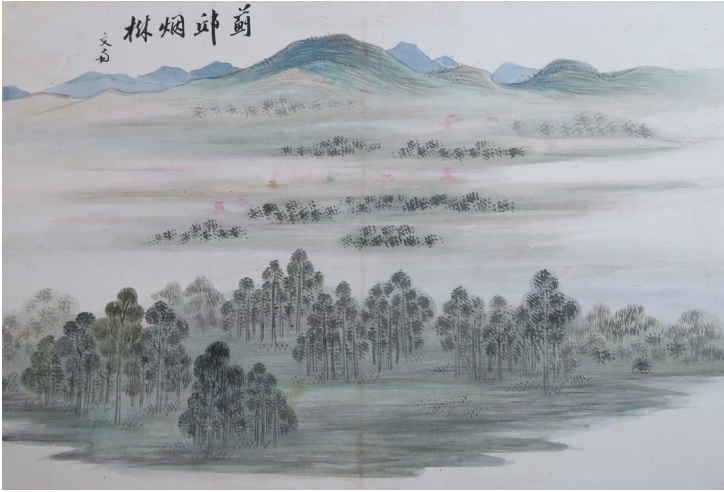


그림14-작자미상, 〈계구연수〉, 《연행시화첩》 제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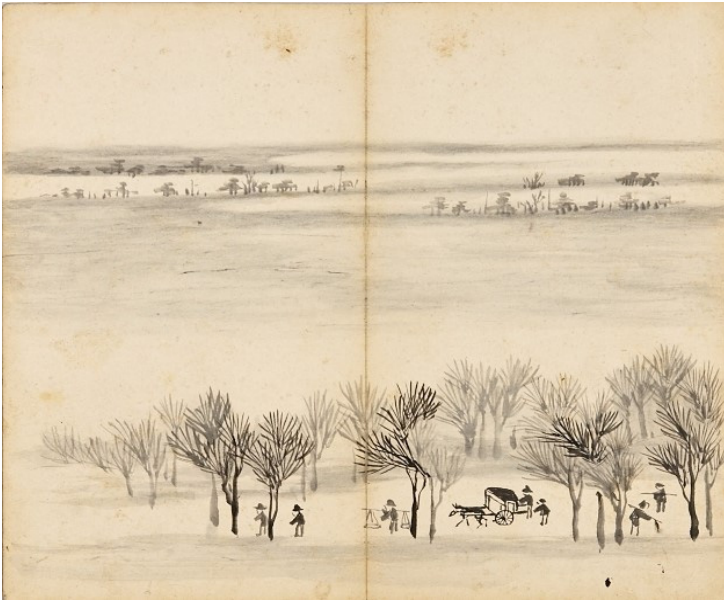


그림15-강세황, 〈계문연수〉, 《사로삼기첩》, 1784년, 지본수묵, 23.3×27.5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16-이의양, 〈계문연수〉, 《이신원사생첩》, 1812년, 지본담채, 26.6×32.3cm, 간송미술관

한편 중국 여정 여행도는 실로 다양한 화목(畫目)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경산수화를 비롯해 풍속화·건축화(建築畵)·회화식 지도(繪畵式地圖)·기물도(器物圖) 등 크게 5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표5 참조).⁴⁸ 18세기 영·정조 대 화단에서 발달한 회화 형식이 두루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1812년에 그려진 이의양의 《이신원사생첩》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여행시화첩》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48 윤민용은 '건축화'의 개념을 '실재하는 건축물 혹은 상상의 건축물 이미지를 주체로 삼아 이를 회화적으로 재현한 그림'으로 정의하였다. 윤민용, 「동아시아 시각에서 본 조선 후기 궁중 소용 建築畵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1), 1~2쪽 참조.

표5-홍경모의 중국 여정 연행도의 회화 형식

회화 형식	연행도	수량
실경산수화	〈通州風帆〉, 〈嘔血臺〉, 〈澄海樓〉, 〈山海關〉, 〈清風臺〉, 〈十三山〉, 〈華表柱〉, 〈醫巫閭全圖〉, 〈薊邱烟樹〉, 〈射虎石〉, 〈昌黎奇峯〉, 〈塔山望海〉, 〈鷄鳴寺〉, 〈安市古城〉	14
풍속화	〈閭陽縱馬〉, 〈大凌河〉	2
건축화	〈瀋陽宮闕〉, 〈關帝廟〉, 〈威遠臺〉, 〈烟臺〉, 〈墩臺〉, 〈祖氏石闕〉, 〈白堊堡塔〉, 〈遼陽白塔〉	8
회화식 지도	〈醫巫閭山〉, 〈瀋陽全城〉, 〈北鎮廟〉	3
기물도	〈牛鼎〉	1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실경산수화가 시화첩 제2권의 앞부분에 실려 있고, 일반적인 감상화와는 성격이 다른 건축화와 회화식 지도 등은 뒤쪽에 모여 있다. 일련의 실경산수화는 국내 여정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명승도의 특징을 보여준다. 대개 화제가 된 초점 경물을 클로즈업하기보다는 멀고 가까운 주변 경관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각 장면의 화면 내용을 뜯어보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중 〈산해관〉은 실제 산해관의 지형지세나 성곽 구조와는 거리가 먼 상상의 경관에 가깝다(그림17 참조). 여타 연행도의 〈산해관〉이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는 편액이 걸린 동문과 나성(羅城) 일대를 포착한 것과 달리 전경(全景)을 조망하고자 한 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산해관 안팎에는 알록달록한 옷차림의 중국인들과 마차 등을 그려 넣었는데, 〈대릉하〉를 뺀 나머지 중국 여정 연행도에는 이처럼 중국인의 모습만 그려졌다.



그림17-작자미상, 〈산해관〉, 《연행시화첩》 제2권

〈통주풍범〉은 《연행시화첩》에만 실린 이색적인 경관으로 북경에서 40리 떨어진 통주성과 강변의 풍치를 담았다(그림18 참조). 북경으로 통하는 조운의 길목답게 강상에 규모가 큰 배들이 운집해 있다. 1836년 동지사 서장관으로 연행한 임백연(任百淵, 1802~1866)은 통주에 이르러 탄 배 위의 누각 구조와 갖가지 시설에 감탄하며 ‘통주해박(通州海舶)은 연도팔경(燕都八景) 중 하나’라고 하였다.⁴⁹ 또 1855년 연행한 서경순(徐慶淳, 1804~?)도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에 각종 시설을 완비한 배 위의 집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채색이 화려하고 사면에 들창을 만들어 푸른 비단을 발랐고 창 사이에 유리를 끼워 영롱하니 옛 말의 부가범택(浮家汎宅)’을 연상시킨다고 하였다.⁵⁰ 이와 같은 전언을 통해 〈통주풍범〉에 등장하는 선박들의 밝고 화사한 채색이 현장감을 살리는 의도적 회화 표현임이 확인된다.

49 任百淵, 『鏡游遊燕日錄』 1836년 12월 19일.

50 徐慶淳, 『夢經堂日史』(2) 「五花沿筆」 1855년 11월 26일.



그림18-작자미상, <통주풍뵈>, 《연행시화첩》 제2권

풍속화로 분류되는 <대릉하>와 <여양종마>도 다른 연행도에 없는 장면이다. 그중 <대릉하>에는 청나라 관원들의 안내에 따라 배를 타고 하천을 건너는 조선 사절단의 모습이 대거 등장한다(그림19 참조). 책문에서부터 삼사와 종사관들이 타고 온 태평거(太平車) 10여 대와 말들, 청인 마부 간차적(看車的) 등이 보인다.⁵¹ 철릭 차림의 사절단 일행은 여기저기 무리를 이루고 있다.⁵² 홍경모도 1834년 2차 연행 때 봄비로 물이 불어난 대릉하를 건넌 것을 테니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화면 구성을 도왔을 것이다.

51 김동건, 「연행 사신의 이동과 看車的에 대하여」, 『영주어문』 제47집(2021), 231~258쪽.

52 조선 사절단의 복색에 대해서는 김경선(저), 김주희(역), 『燕轅直指』, 국역 연행록 선집 X(서울: 경인문화사, 1976), 59~60쪽 참조.



그림19- 작자미상, <대령하>, 19세기, 지본채색, 27.2×41.1cm, 개인 소장

<여양종마>는 유사 사례가 없는 특이한 내용의 연행도이다(그림20 참조). 화면에 그려진 총 136마리의 말들이 왼쪽 방향으로 떼를 지어 이동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채찍을 든 젊은이 하나가 발견된다. 백마와 흑마, 얼룩말까지 말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움직임도 여러 가지이다. 이는 홍경모가 여양역을 지나면서 마주친 진풍경을 담은 장면이다.⁵³ 2차 연행 때 쓴 「여양 앞 교외에 말 500~600필이 길을 덮으며 오고 건장한 사내 2명이 말을 타고 뒤를 따르는데 머리를 들고 나란히 달려오며 기울지 않고 어지럽지 않으니 말을 모는 법이 마땅함을 알 수 있다(閭陽前郊 鬣者五六百匹蔽路而來 健兒二人 騎馬隨後 昂首齊馳 不仄不亂 可見牧御得宜)」라는 제목의 시를 화제로 삼았기 때문이다.⁵⁴ 홍경모에게 당시 만난 목동과 말떼가 연행도에 포함시킬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듯하다. 또한 ‘문재’는 말 그림을 능숙하게 소화하는 화가였음을 보여준다.

53 朴趾源·吳載紹·權復仁 등 많은 연행사들이 북경으로 향하는 노정에서 접한 중국 목축의 발달상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임영길, 앞의 논문(2018), 192~193쪽.

54 洪敬謨,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1) 『槎上續韻』 「閭陽前郊 鬣者五六百匹蔽路而來 健兒二人 騎馬隨後 昂首齊馳 不仄不亂 可見牧御得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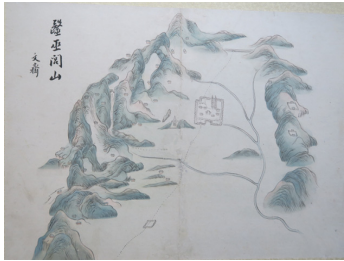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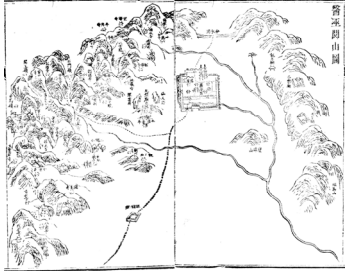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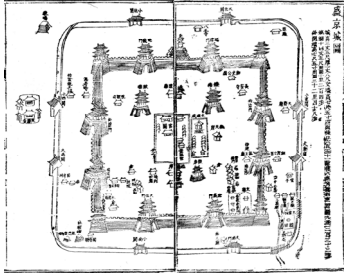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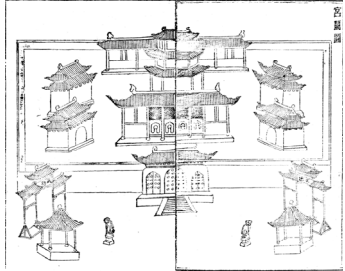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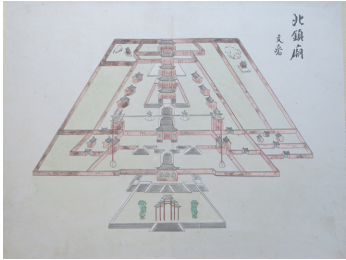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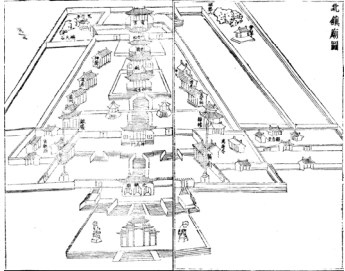
그림20-작자미상, 〈여양종마〉, 《연행시화첩》 제2권

건축화와 회화식 지도 형식으로 그려진 작품 중 심양과 광녕 소재 산수와 사적 4장면은 『성경통지(盛京通志)』의 목판 삽도를 직접 모사한 것이다(표6 참조). 홍경모는 연행록 저술 과정에서 각종 국내 문헌과 연행록은 물론이고 중국의 역대 사서와 유서, 지방지 등 방대한 자료를 열독하고 인용하였다.⁵⁵ 『성경통지』의 경우 그 내용을 참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행도를 제작할 때 삽도까지 활용했던 것이다. 이 밖에 〈십삼산〉은 강희 연간에 편찬되어 1777년 연행 사신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산천전(山川典)」에 실린 삽도 〈십삼산〉을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⁵⁶ 이는 홍경모의 연행도 제작에 명·청 대 지방지 삽도와 산수판화가 참조되었음을 방증한다. 현장 답사를 거치지 않은 화가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된 셈이다.

55 김동건, 앞의 논문(2018), 136쪽.

56 『正祖實錄』 1년(1777) 2월 24일. 『古今圖書集成』을 비롯한 중국 산수판화와 조선 회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박정애, 「17-18세기 중국 山水版畫의 형성과 그 영향」,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4호(2008a), 131~162쪽 참조.

표6-《연행시화첩》의 연행도와 『성경통지』 삽도

화제	《연행시화첩》	『성경통지』
醫巫閭山		
瀋陽全城		
瀋陽宮闕		
北鎮廟		

마지막으로 배경을 생략하고 특정한 건축 혹은 기물을 단독 주제로 삼아 형태 묘사에 집중한 장면들이 있다. <조씨석궤>이나 <요양백탑>은 같은 대상을 그린 《연행도》와 《이신원사생첩》의 장면에 공간적 배경이 설정된 점과 비교가 된다(그림21, 그림22 참조). 또한 홍경모의 군사 시설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장면도 적지 않다. 그중 산해관에서 동쪽으로 3리 거리에 있는 <위원대>를 《이신원사생첩》의 <위원대>와 비교해 보면, 웅성(甕城)이 딸린 방형 구조라는 점은 일치하나 합리적 공간 구조를 제대로 살린 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림23, 그림24 참조). <돈대>와 <연대>도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성경통지』의 삽도를 베낀 화면까지 전반적으로 거칠고 생략적인 묘사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는 화가가 현장 사생이 아닌 참고자료에 의존해 작업하면서 빚어진 한계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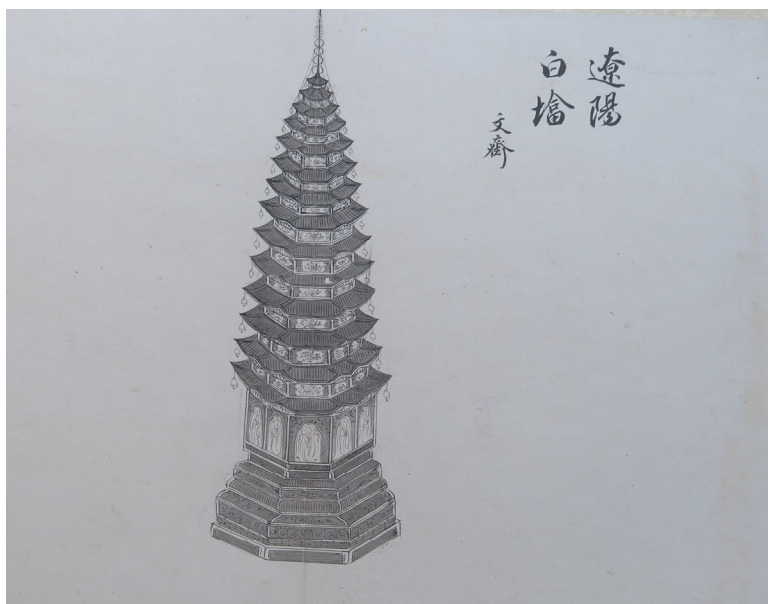


그림21-작자미상, <요양백당>, 《연행시화첩》 제2권



그림22-이의양, 〈요동백탑〉, 《이신원사생첩》, 1812년, 지본담채, 26.6×32.3cm, 간송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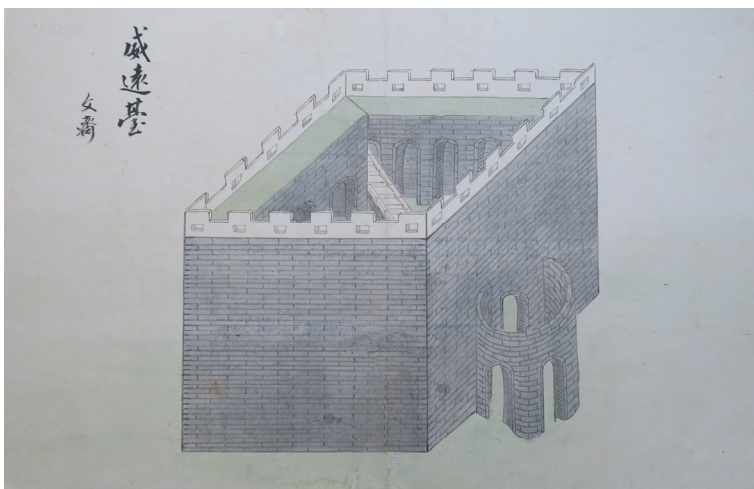


그림23-작자미상, 〈위원대〉, 《연행시화첩》 제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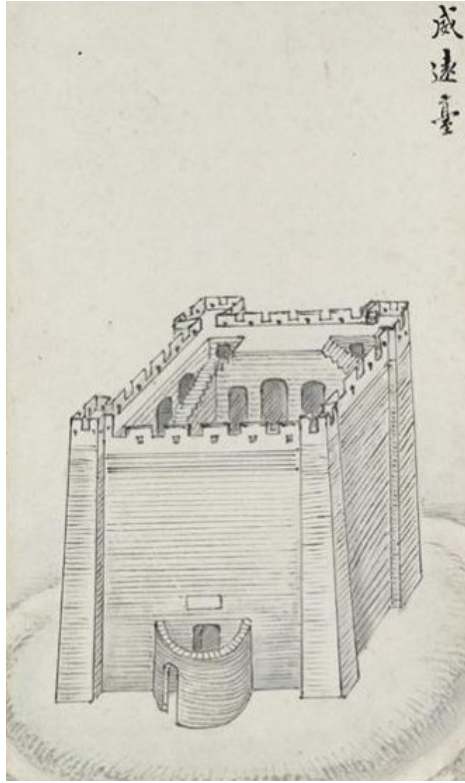


그림24-이의양, <위원대>, 《이신원사생첩》, 1812년, 지본담채, 간송미술관

이와 같은 건축화는 관련 의례의 도설(圖說)과 함께 18세기 후반 정조대를 거치며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화목으로 뿌리내렸다.⁵⁷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홍경모는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 추숭사업과 연계해 건설한 신도시 화성과 관련되는 장편 기문을 남겼다.⁵⁸ 「화성행행도기」에는 1795년

57 윤민용, 앞의 논문(2021), 24~58쪽.

58 홍경모는 8세 때 童蒙으로 선발되어 어전에서 『孝經』을 강하였고, 20세 때 기로소에 입소하게 된 조부와 함께 정조를 배알했다. 또한 22세 때인 1795년에는 同姓親 자격으로 惠慶宮洪氏 周甲宴에 참석해 御製喜詩에 갹진하는 등 일찍부터 궁궐을

윤2월에 있었던 정조의 화성 행차 의식과 행사를 기록하였고 『화성기(華城記)』에는 화성 건설이 마무리된 이후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정리해 놓았다. 그가 이 두 편의 기문을 작성하기 위해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를 저본으로 삼았음이 밝혀진 바 있다.⁵⁹ 주지하다시피 이 의궤들에는 건축화와 기물도 등 새로운 형식의 도설판화가 대량 삽입되었다. 특히 『화성성역의궤』 권수도설(卷首圖說)에는 성문과 장대, 포루, 공심돈과 같은 군사시설의 내·외부 구조와 형태를 치밀하게 도해한 단독 판화가 다수 포함되었다(그림25 참조).⁶⁰ 이와 같은 의궤 도설이 건축화 형식 연행도가 유독 많은 홍경모의 『연행시화첩』 구성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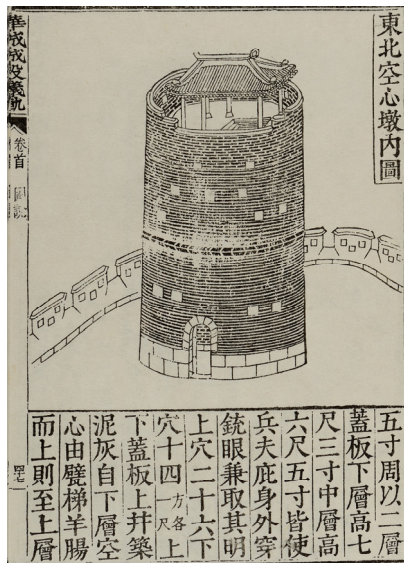


그림25-〈동북공심돈내도〉, 『화성성역의궤』 권수도설, 목판화

드나들며 정조 임금과 여러 차례 대면하였다. 임유의, 앞의 논문(2015), 23쪽.

59 김문식, 「관암 홍경모의 華城 관련 기록」, 이종목(편), 앞의 책, 321~370쪽.

60 박정혜, 「『華城城役儀軌』의 회화사적 고찰」, 『震檀學報』 제93호(2002), 425~432쪽.

V. 맺음말

이 글에서 처음 소개되는 《연행시화첩》은 홍경모가 1830년과 1834년에 가진 두 차례 연행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경화세족으로 꼽히는 풍산홍씨 가문은 홍경모를 비롯해 40여 명의 연행사를 배출하였고 연행록의 저술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행도 제작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홍경모의 《연행시화첩》이 특별히 주목을 끈다. 이 시화첩에는 홍경모가 서울에서 북경에 이르는 노정에서 만난 산수경관과 명승고적을 제재로 삼은 20여 편의 시와 36폭의 그림이 실려 있다. 기왕에 알려진 연행도들이 중국 여정의 그림으로만 구성된 것과 달리 국내 여정의 시화가 포함되었고, 대신 북경 여정은 제외되었다. 《연행시화첩》의 모든 화제는 홍경모의 연행 여정에서 추출되었다. 자신의 여정을 토대로 하되 조부 홍양호와의 인연처럼 개인적으로 각별히 여기는 경승을 선별한 결과 여타 연행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매우 많다.

연행도 화면의 여백에 ‘문재’라는 관서를 남긴 화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실경산수화, 풍속화, 회화식 지도, 건축화 등 18세기 화단에서 발달한 회화 형식을 고루 활용한 솜씨로 보아 전문화가로 추정된다. 하지만 화가가 연행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만큼 주문자인 홍경모의 연행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해 그림을 완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내 여정의 경우 18세기 말~19세기 초 화단에서 제작된 관서명승도와 친연성을 보이는 장면이 있고, 중국 여정에서는 『성경통지』의 삽도를 모사한 장면이 확인되어 제작 방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제작 여건의 한계로 인해 실제 현장과 거리가 있는 화면 내용이나 부정확한 시설물 묘사 등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분방한 필치를 구사한 경물

묘사법과 반진채 청록산수화법 등은 김하중(金夏鍾, 1793~1878 이후)의 《해산도첩(海山圖帖)》이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관서명승도첩》과 같은 19세기 실경산수화풍과 상통하는 요소이다.⁶¹

이 《연행시화첩》은 홍경모가 70대 이후 평생의 저술을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홍경모의 연행 체험과 연행 기록의 시각적 버전(version)이라 할 만하다. 그 배경에는 19세기 들어와 조선 문인지식인들이 연행을 매개로 정보 수집의 범위를 확대해나갔던 기조가 깔려 있다.⁶² 특히 홍경모의 가문 의식과 기록 및 정리에 집착했던 개인적 성향이 《연행시화첩》의 제작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홍경모는 『총사』 편찬이 미완에 그친 것처럼 《연행시화첩》도 계획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듯하다. 요컨대 오늘날까지 전하는 연행도의 양이 많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홍경모의 《연행시화첩》은 향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는 귀한 연구 자원이라 하겠다.

61 박은순, 「金夏鍾의 《海山圖帖》」, 『미술사논단』 제4호(1997b), 309~331쪽; 박정애, 앞의 논문(2021), 175~179쪽.

62 임영길, 앞의 논문(2018), 79~95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金景善, 『燕輶直指』.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李有駿, 『夢遊燕行錄』.

徐慶淳, 『夢經堂日史』.

申翼相, 『醒齋遺稿』.

任百淵, 『鏡渚遊燕日錄』.

鄭元容, 『經山集』.

陳夢雷(編), 『古今圖書集成』(영인본). 臺北: 鼎文書局, 1977.

陳灌, 『梅湖遺稿』.

韓章錫, 『眉山集』.

洪敬謨,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3428-263(8)].

_____,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續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3428-263(9)].

_____, 『冠巖游史』.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3428-263(5)].

_____, 『冠巖全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3428-263(1)].

_____, 『冠巖存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3428-263(3)].

洪奭周, 『淵泉集』.

『盛京通志』.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64-43).

『朝鮮王朝實錄』.

2. 단행본

김경선(저), 김주희(역), 『燕輶直指』. 국역 연행록선집 X, 서울: 경인문화사, 1976.

김호연, 『韓國民書』. 서울: 경미문화사, 1977.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연행록선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박은순, 『金剛山圖 연구』. 서울: 일지사, 1995.

박정애,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이종묵(편),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1.

이태진·이상태(편), 『朝鮮時代 私撰邑誌』 46. 平壤續志(영인본),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0.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서울: 사회평론, 2012.

3. 논문

- 강석화, 「19세기 京華士族 洪敬謨의 생애와 사상」. 『한국사연구』 제112권, 2001, 165~195쪽.
- 김동건, 「洪良浩家 燕行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_____, 「연행 사신의 이동과 看車의에 대하여」. 『영주어문』 제47집, 2021, 231~258쪽.
- 김명순, 「洪錫謨의 游燕藁 研究」. 『동방한문학』 제27권, 2004, 257~290쪽.
- 김문식, 「관암 홍경모의 華城 관련 기록」. 이종묵(편),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2011, 321~370쪽.
- 김영진, 「燕行錄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試論」, 『대동한문학』 제34권, 2011, 65~91쪽.
- 김지현, 「조선 北京使行의 漢陽 餞別 장소 고찰」. 『한문학보』 제38집, 2018, 3~28쪽.
- 박은순, 「조선후기 『심양관도』 화첩과 서양화법」. 『미술자료』 제58호, 1997a, 25~55쪽.
- _____, 「金夏鍾의 《海山圖帖》」. 『미술사논단』 제4호, 1997b, 309~331쪽.
- 박정애, 「17-18세기 중국 山水版畫의 형성과 그 영향」.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4호, 2008a, 131~162쪽.
- _____, 「朝鮮後期 關西名勝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58권, 2008b, 105~139쪽.
- _____, 「18-19세기 箕城圖 屏風 연구」. 『古文化』 제74호, 2009, 5~41쪽.
- _____, 「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鶴의 이미지와 표현 양상」. 『미술사연구』 제26호, 2012, 125~127쪽.
- _____, 「《관서명승도첩》으로 보는 19세기 평안도 명승의 재현양상」. 서울역사박물관(편) 『관서명승도첩』, 서울역사박물관, 2021, 158~181쪽.
- 박정혜, 「『華城城役儀軌』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제93호, 2002, 413~471쪽.
- 신영주, 「18, 19세기 홍양호가(家)의 예술 향유와 서예 비평」. 『민족문학사연구』 제18권, 2001, 398~434쪽.
- 윤민용, 「동아시아 시각에서 본 조선 후기 궁중 소용 建築畫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군선, 「冠巖 洪敬謨의 詩文과 그 性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冠巖 洪敬謨의 평양에 대한 인식: 고증학적 학문태도와 관련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35권, 2004, 87~107쪽.

- _____, 「관암 홍경모의 가문의식」,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39권, 2005, 93~115쪽.
- _____, 「관암 홍경모의 시문집과 그 내용」, 이종묵(편),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2011, 41~102쪽.
- 이승수, 「洪敬謨의 行人 의식과 중국 인식」, 『고전문학연구』 제43호, 2013, 507~536쪽.
- 이종묵,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四宜堂」, 『한문학보』 제19권, 2008, 567~592쪽.
- 이창숙, 「관암 홍경모의 중국 체험과 인식」, 이종묵(편),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2011, 163~210쪽.
- 임영길, 「19세기 前半 燕行錄의 특성과 朝·淸 文化 交流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임유의, 「冠巖 洪敬謨의 淸代 文人과의 交遊와 燕行錄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전영우, 「葆華閣所藏의 「李信園寫生帖」」, 『고고미술』 제9권 제5호, 1968, 399~404쪽.
- 정우봉, 「耳溪 洪良浩의 燕行錄에 나타난 중국 체험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63호, 2016, 67~95쪽.
- 정은주, 「1760년 庚辰冬至燕行과 《瀋陽館圖帖》」, 『명청사연구』 제25집, 2005, 97~138쪽.
- _____, 「淸明交替期 對淸 海路使行記錄畫 研究」, 『명청사연구』 제27집, 2007, 189~228쪽.
- _____, 「燕行 및 勅使迎接에서 畫員의 역할」, 『명청사연구』 제29집, 2008, 1~36쪽.
- _____, 「19世紀 初 對淸使行과 燕行圖: 《李信園寫生帖》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제43집, 2015, 217~255쪽.
- 황정연, 「18·19세기 풍산홍씨(豊山洪氏) 이계(耳溪) 집안의 서화(書畵) 수장(收藏)」, 『역사문화논총』 제4호, 2008, 231~263쪽.

4. 웹사이트

-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한국의 지식콘텐츠(<https://www.krpia.co.kr>).

국문초록

이 글에서 처음 소개되는 《연행시화첩》은 조선후기 경화세족 출신 관암 홍경모가 1830년과 1834년에 한 연행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유물이다. 여기에는 서울에서 북경에 이르는 노정에 있는 산수경관과 명승고적을 주제로 한 20여 편의 시와 36폭의 그림이 실려 있다. 기왕에 알려진 연행도들이 중국 여정의 그림으로만 구성된 것과 달리 《연행시화첩》에는 국내 여정까지 포함되었다.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화가 ‘문재’는 그려진 대상에 따라 실경산수화, 풍속화, 건축화 등 18세기 화단에서 발달한 회화 형식을 폭넓게 활용하였다. 직접적인 연행 경험이 없었던 화가가 홍경모의 연행시문과 관련 자료를 참고해 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홍경모가 70대 이후 자신의 자취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평생의 저술을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연행시화첩》은 연행기록의 시각적 버전(version)이라 할 만하다. 그 배경에는 19세기 들어와 조선 문인지식인들이 연행을 매개로 정보 수집의 범위를 확대해나갔던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홍경모의 가문 의식과 기록 및 정리에 집착했던 개인적 성향이 《연행시화첩》의 제작 동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투고일 2023. 3. 20.

심사일 2023. 4. 18.

게재 확정일 2023. 5. 10.

주제어(keywords) 홍경모(Hong Gyeong-mo), 연행도(yeonhaeng-do), 사행기록화(documentary paintings of Sino-Korean diplomatic relations), 연행시화첩(Yeonhaengsihwacheop), 평양(Pyongyang), 서도(Seodo)

Abstract

A Study on the Journey of Gwanam Hong Gyeong-mo to Beijing as an Envoy and *Yeonhaengsihwacheop*

Park, Jeongae

The album entitled *Yeonhaengsihwacheop* was produced based on the visits of Hong Gyeong-mo (sobriquet: Gwanam, 1774~1851), a member of a powerful Seoul family, as an envoy to Beijing in 1830 and 1834,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is album is being introduc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article. It contains approximately 20 poems and 36 paintings on the theme of landscapes and historical places along the path from Seoul to Beijing. Unlike other previously known paintings of diplomatic journeys to Beijing that feature only elements from voyages within China, *Yeonhaengsihwacheop* also includes selections from travels within Korea. This album bears a painter's signature, which reads "Munjae." The painter, whose background remains unknown, employed diverse painting styles developed in the eighteenth century, including real scenery landscape painting, genre painting, and architectural painting. While the painter had no personal experience visiting Beijing, he is presumed to have consulted the poems of Hong Gyeong-mo about his journeys to the city and other related items as source materials for the paintings. Hong commissioned the production of *Yeonhaengsihwacheop* in his seventies as part of the process of compiling his collected writings to pass them down to his descendants. *Yeonhaengsihwacheop* can be considered a visual documentary of the diplomatic journeys to Beijing. The production of this visual representation was affected by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literati and intellectuals through diplomatic journeys to Beij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Moreover, Hong Gyeong-mo's sense of family and his personal inclination toward obsessive documentation appears to have inspired the production of *Yeonhaengsihwacheop*.

